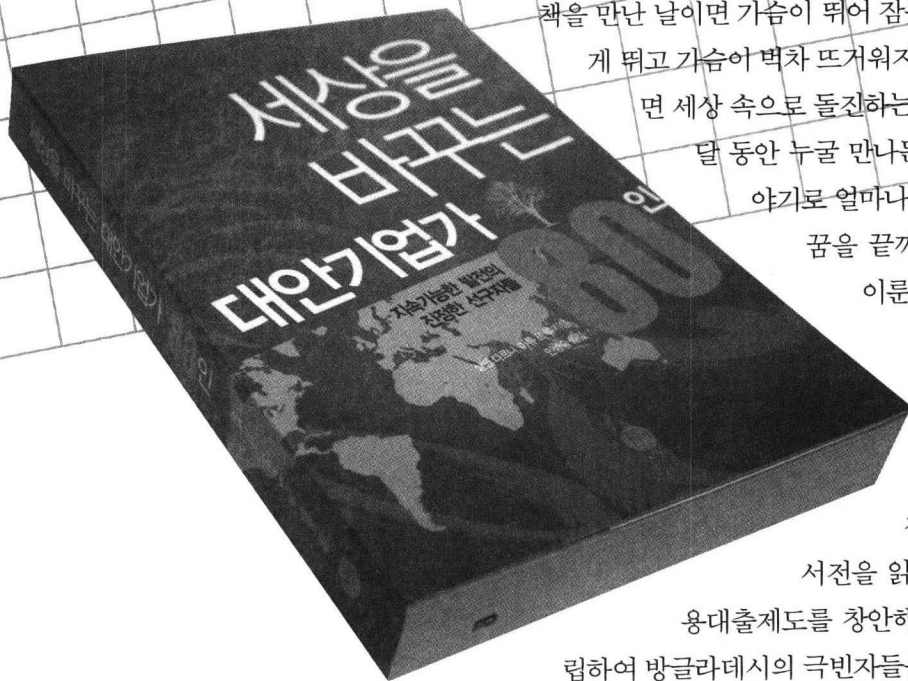


##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열정가들

글\_허아람



해마다 놀라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꼭 한 권씩 내 생을 혁명할만한 책을 만난 날이면 가슴이 뛰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심장이 심하게 뛰고 가슴이 먹차 뜨거워지는 열정을 어찌하지 못해 달이 밝으면 세상 속으로 돌진하는 톤키호테가 되어버립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누굴 만나든 어디에서건 저는 이 책에 관한 이야기로 얼마나 신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을 만나, 꿈을 이룬 두 청년의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실뵁 다르니·마튜르루 지음)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들의 이 거대하고 멋진 프로젝트의 동기는 무하마드 유누스의 자서전을 읽고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소셜인용대출제도를 창안해서 빈민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방글라데시의 극빈자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켰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로 무하마드 유누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급박한 문제들의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아 행동하고, 발명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는 이들 대안기업가들의 삶은 단순히 생태·환경을 위해 애쓰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기보다 우리 삶의 근원적인 방식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며 동시에 꿈을 이루는 동력인 창의적 열정과 진지함 그리고 타인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서문에서 “놀랄 준비는 다 되셨는지?” 하며 “다음과 같은 세상을 상상해 보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실뵁 다르니·마튜르루 지음 | 민병숙 옮김 |  
마교북스 | 328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을 열고 책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 병원의 수익으로 환자 중 3분의 2는 무료로 치료해 주고, 인공보조장치 등 의료기구를 통상가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공급한다.
- 도심의 대중교통망이 매우 편리하고 쾌적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일 년에 단 몇 시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게다가 이 자동차도 에너지 효율이 두 배는 더 좋아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은행에서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극빈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익을 올리면서도...
- 탈지역화를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동종 산업 평균 급여의 최소 두 배 이상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의 기업을 자국 티셔츠 시장의 선두에 올려놓는다.

꿈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도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막대한 이윤도 창출하는 기막히게 조화로운 이들의 기업활동은 농업, 건축, 교육,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물종의 다양성, 공정무역, 산업생태학, 쓰레기 처리, 보건위생, 교통,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몇 개의 방식들도 눈에 띄었지만 제가 주목한 점은 그들의 공통점은 작은 규모의 이상주의자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연이 가장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해주고 자연 그대로의 생명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이상주의적 비전이 현실과의 괴리를 통해 포기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망들이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결합되어 자신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더 나은 미래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영웅들, 대안기업가들을 따르는 노동자나 지지자들도 그들의 수입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거나 소비재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연대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무하마드 유누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그라민 은행을 세우게 된 계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던 그가 독립한 조국 방글라데시로 귀국한 해로부터 3년 동안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죽고 있는데 나는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 못하는 우아한 경제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보호받은 채,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의 이런 결단은 세계 큰 감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찾지 말고 창조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영원한 열정의 인간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슬의 첫 번째 고리를 푸는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죠. 사람에게 희망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창조적인 열정기를 소개한다면 윌리엄 맥도너입니다. 그는 《요람에서 요람으로》(윌리엄 맥도너·미하엘 브라운가르트 지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생태디자인 분야의 건축가입니다.

“자연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한 종이 버린 것을 다른 종이 섭취하니깐요.” 그의 창의력 넘치는 건축물들과 전위적인 작업들은 기존의 환경보호나 생태계 보존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생분해가 가능한 카펫을 제조해서 전량 생태계 안에서 분해되도록 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 등입니다.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자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나보았는지를. 경험해보았는지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이 책을 꼭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열정을 부추기는 이들 대안기업가들에 힘입어 아이들과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의 가장 작고도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소통할 장을 또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두 달 동안 2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인문교양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바람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지은 저자 실빙 다르니와 마튜 르 루를 초대하기로 한 계획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나 서면으로 묻는 궁극한 것들에게 대해 상냥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다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기에 청소년들이 이들을 직접 만난다면 더 멋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하마드 유누스 씨도 내년이면 우리들을 만날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윌리엄 맥도너 씨는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운동들의 원칙을 담은 책자와 그의 활동을 담은 DVD를 보내왔고 우리들의 용기 있는 실천을 격려하는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 만한 곳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이미 실천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세계 곳곳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